

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위드코로나 전환

최장호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최유정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차 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북한의 경제난 가중과 위드코로나 전환
3. 북중 무역 동향
4. 2022년 평가와 2023년 전망

주요 내용

- ▶ 북한은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위드코로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대규모 아사자 보도, 식량 수입량 증가 등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징후가 관찰되는 가운데,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농업 증산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경봉쇄를 완화하고 있음.
 - 대내 코로나19 확산(2022. 5) 이후 위드코로나 전환(2022년 하반기)의 일환으로 수입 화물의 검역·통관 시간을 단축(2022. 6)하였으며, 수입 경로를 해상 운송, 화물 열차, 화물 트럭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 ▶ 위드코로나의 영향으로 대중 무역은 10억 2,776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23.2% 증가하였으나, 국지적인 식량난 발생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아직까지 경제난을 타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님.
 - 2022년 대중 수입은 8억 9,335만 달러로 2021년 2억 6,016만 달러 대비 243.4% 증가하였고, 대중 수출은 1억 3,441만 달러로 2021년의 5,787만 달러 대비 132.2% 증가하였음.
 - 다만 2022년 북중 무역 규모는 2019년(코로나19 국경봉쇄 직전 해)에 비해서는 여전히 63.1% 감소한 수준이어서 국경봉쇄로 인한 물자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화물 열차 재개와 함께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산업 원부자재 조달, 주민들의 소비품 다양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 2023년에는 위드코로나 일환으로 단둥-신의주 구간에서도 화물 트럭 운행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으로 북한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겠으나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UN 제재는 북한의 수출에, 코로나19 국경봉쇄는 북한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위드코로나 전환 시 북한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23년 북한의 수입 증가는 민간 소비가 주도할 개연성이 큰데, 이는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시장 통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임.
- ▶ 향후 북중 무역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중국의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미중 갈등 문제가 한반도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입장 마련이 필요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경제난 심화] 북한 내 코로나19 국경봉쇄가 장기화되어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
 -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2020년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출입이 대폭 감소한 지 3년여가 경과하면서 북한 사회 전반에 물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통일부도 2023년 1~2월 중에 “북한 일부 지역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¹⁾하였으며, 북한에 대규모의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대중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경제난의 정도를 가늠하고자 함.
- [위드코로나 전환] 북한은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위드코로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 품목과 규모를 변화시켜 북한경제에 영향(예: 경제난 경감 등)을 미칠 전망이다.
 - 구체적으로, 위드코로나 전환 증거로 북중 화물 열차·트럭 운행 재개, 북러 화물 열차 운행 재개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화물 트럭의 경우 인적 접촉이 심할 수 있어 북한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트럭 운행을 강행하고 있음.
 - 육로 화물 열차와 트럭 운행 재개로 수입 화물 운송 수단이 [해상 운송] → [해상 + 육로 운송]으로 정상화되면서 대중 수입 품목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지고 있음.
 - 위드코로나 전환이 북한 내 물자난을 어느 수준까지 타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 [정책의 방향성 모색] 이에 본고에서는 2022년 북중 무역 동향과 통계를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난과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함.
 - 2021년 북중 무역 비중은 95.6%²⁾로 사실상 북한 무역 전체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2. 북한의 경제난 가중과 위드코로나 전환

- [개관] 수입 물자 부족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국경봉쇄를 완화하고 수입 품목과 물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북한 경제난은 상대적으로 수입 물자 부족으로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산업생산을 위한 가치사슬(Value Chain)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기인함.

1) 「통일부, 北아사자 속출 배경에 "생산량 감소·유통문제"」(2023. 2. 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1069700504?section=nk/news/all>(검색일: 2023. 3. 7).

2) KOTRA, 「2021 북한 대외무역 동향」, p. 1.

- 물자 부족 문제가 악화될수록 위드코로나 전환을 가속화하여 수입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수입 품목의 구성도 변할 전망이다.
- 물자난은 '식량 위기 징후 발생, 시장 유통량 감소에 따른 쌀 가격 상승, 주요 수입 물자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해볼 수 있음.
- 위드코로나 전환 정도는 '통관·검역 기간 축소, 수입 운송수단 다양화'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식량난과 물가 상승] 최근 식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징후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위드코로나 전환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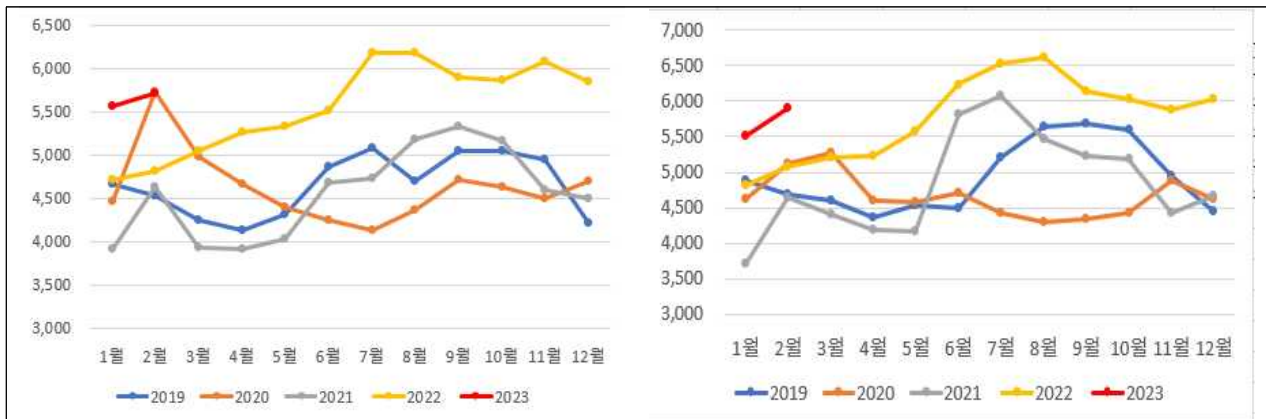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에서는 2022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451만 톤으로 전년대비 18만 톤 감소하였다고 추정함.³⁾
- 북한 개성시에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⁴⁾가 전해지고는 있으나,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후속보도가 이어지거나 증거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함.
 - 개성시에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진 시기가 1월 말~2월 초인데, 통상적으로 춘궁기는 3~5월인 점을 고려하면 식량이 부족하여 개성시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식량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북한 내 식량 배분과 유통 문제로 발생한 국지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식량 부족 문제는 일시적일 수 있음.
 - ※ 2021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469만 톤이었는데, 2022년에는 대규모 아사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음.
- 북한의 2022년 쌀 가격은 최근 3개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그만큼 수요량 대비 시장에 유통되는 쌀의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그림 1 참고).
 - 2022년 하반기 쌀 수입량 증가는 당국의 정책적인 장려와 쌀 유통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북한 당국은 지난 9월 양곡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타개하고자 「허풍방지법」을 제정하고 식량생산량, 수매량, 유통량 등에 대한 허위 보고 처벌을 강화하기도 하였음.⁵⁾
 - 2023년 연이어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도 농업 생산 확대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음.
- 대규모 아사자 발생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부터 북한 당국은 식량 부족 상황을 우려해왔으며, 이를 대비하여 쌀 수입량 확대와 안정적인 쌀 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3) 농촌진흥청(2022), 「2022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발표」, p. 1.

4) 「北 개성에 하루 수십명씩 아사자...김정은, 두차례 간부 파견」(2023. 2. 6), 『연합뉴스』, <https://www.premiumnews.co.kr/main>(검색일: 2023. 3. 8) 연합뉴스 프리미엄DB를 통해 저자 작성.

5) 「식량난 北, 양곡 유통비리 얼마나 심하길래...「허풍금지법」 등장」(2022. 9. 28), 『연합뉴스』, <https://www.premiumnews.co.kr/main>(검색일: 2023. 3. 8) 연합뉴스 프리미엄DB를 통해 저자 작성.

그림 1. 북한 시장의 쌀 가격 추이(2019~23년)



자료: DailyNK(좌), AsiaPress(우).

■ [검역 속도와 경로 개선] 북한은 2022년 하반기부터 통관·검역 기간을 축소하여 수입 경로를 다양화하였으며, 이는 수입 규모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짐.

- 해상 운송에서 선박들의 외항 대기 시간을 2022년 6월 중순 이후 90일에서 15일로 단축⁶⁾하였고, 수입 화물 소독도 15~90일 소요되던 것을 10일 내외⁷⁾로 단축하였는데, 실제로 2022년 6월부터 대중 수입액이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 동시에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하였는데, 제1차 운행 재개(2022. 1. 17~4. 29) 이후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단하였다가 제2차 재개(2022. 9. 26~현재)를 하여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음.
- 북중 화물 트럭 운행도 재개하였는데, 중국 훈춘에서 출발한 트럭이 북한으로 운행(2023. 1. 4)하였음.
-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중 수입 경로는 선박, 화물 열차, 화물 트럭으로 다양화되었으며,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음.

■ [위드코로나 전환] 20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화물 열차 및 트럭 운행 재개를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육로 무역의 경우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ک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역 정상화를 위해 이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임.

-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살펴보면, 제1차 운행 재개 시에는 중국 단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여 화물 열차 운행을 중단하였음.
- 그러나 제2차 운행 재개 시에는 2022년 11월에 단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단둥 현지에 화물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았음.
-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감수하면서 수입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물 열차 운행을 지속하

6) 「북중 7월 교역액 전달보다 233% 증가...」北 해상교역 확대 영향」(2022. 8. 18), 『연합뉴스』, <https://www.premiumnews.co.kr/main>(검색일: 2023. 3. 8) 연합뉴스 프리미엄DB를 통해 저자 작성.

7)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하)』, p. 826.

고 있음을 의미함.

- 육로 무역은 대중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빠른 시기 안에 단둥-신의주 노선에서도 북중 화물 트럭 운송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됨.

■ [미중 갈등과 한반도] 북한의 위드코로나 전환 성공으로 수입 물자난이 경감되고 북한 경제난이 완화된다면 북한의 수출을 압박하고 있는 UN 대북제재의 실효성 논쟁이 재점화되고, 중국의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미중 갈등 문제가 한반도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전망이다.

- 대중 수입은 주로 코로나19 국경봉쇄의 영향을 받고 있고 대중 수출은 UN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위드코로나 전환에 성공하여 국경봉쇄를 철회하게 되면 대중 수입이 활로를 찾을 것임.
- 북한이 핵 기술 개발, ICBM 실험 등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압박이 관건이므로, 북한의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에는 중국의 UN 대북제재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한반도 문제와 미중 갈등의 연계가 더욱 심화될수록 우리 정부의 통일과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인 공간과 정책 수단이 줄어들 것임.

3. 북중 무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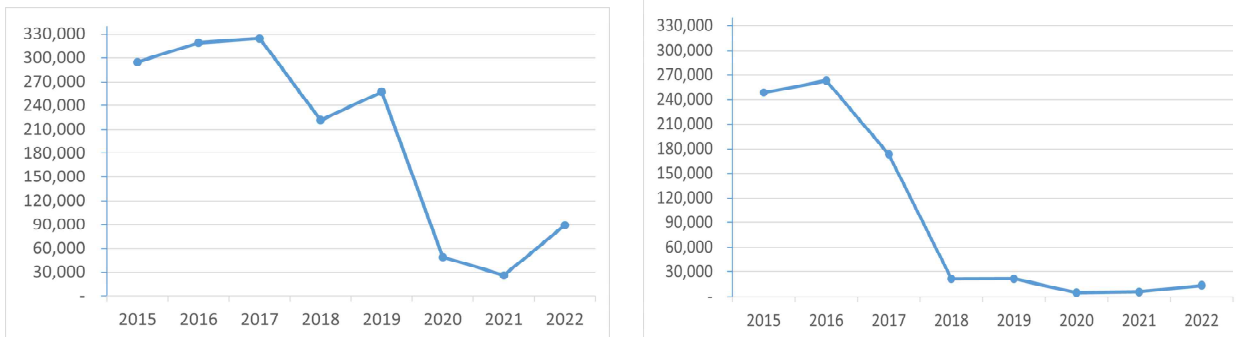
가. 북중무역 개관

■ [개관] 2022년은 북한의 위드코로나 전환 초기 단계로 평가되는데, 전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북중 무역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2년 통관·검역 기간 단축, 육로 운송 재개에 힘입어 대중 무역은 10억 2,776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23.2% 증가하였으나, 경제난을 타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님.
 - 2022년 북중 무역 규모는 2019년(코로나19 국경봉쇄 직전 해)에 비해서는 여전히 63.1% 감소한 수준이어서 국경봉쇄로 인한 물자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대중 수입은 8억 9,335만 달러로 전년 2억 6,016만 달러 대비 243.4% 증가
 - 대중 수출은 1억 3,441만 달러로 전년 5,787만 달러 대비 132.2% 증가
- 대중 수입의 증가 폭이 대중 수출보다 큰 것은 대중 수입은 해운 운송과 화물 열차 등 복수의 경로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대중 수출은 해운 운송이라는 단일 경로로 이루어지고, 또 수입 물자 부족으로 산업생산이 회복되지 않아 수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임.

그림 2. 연도별 대중 수입(좌)과 수출(우) 현황(2015~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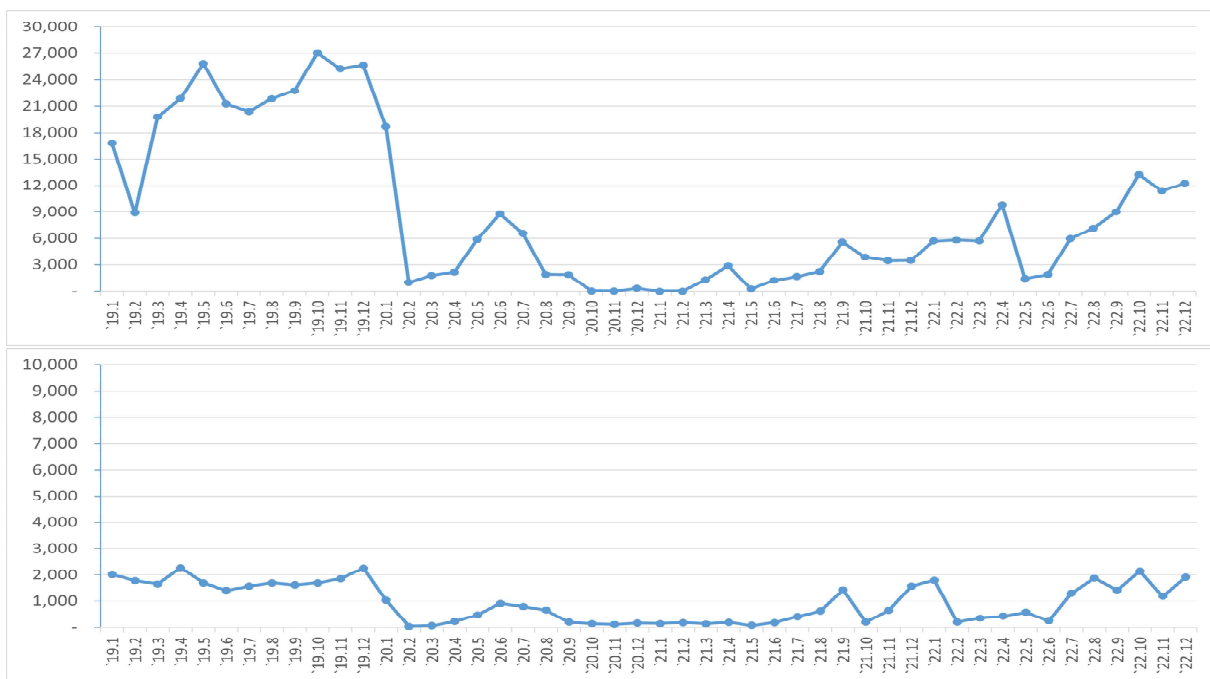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월별 대중 수입(상) 수출(하) 현황(2019~22년)

(단위: 만 달러)



주: 2022년 5~6월 대중 수입이 갑자기 감소한 것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 주원인임.
대중 수입은 해운(선박)과 화물 열차로 이루어지나, 대중 수출은 해운(선박)으로만 이루어짐.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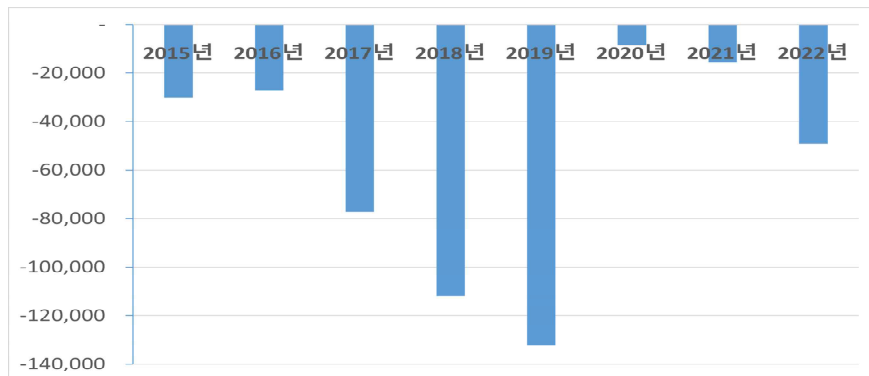
■ [상품수지 적자] 2022년 상품수지는 -7억 5,894만 달러로 전년동기 -1억 3,253만 달러 대비 472.7% 악화되었으나, 북한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2022년 약 7억 6천만 달러의 적자는 평년 수준으로, 북한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규모는 아님.
-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북한의 서비스 수지(평년 기준 해외노동자 파견, 조업료 수입 등 여러 가지의 수입이 8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를 고려하면, 북한경제는 평년 기준 약 8억 달러 정도의 상품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UN 대북제재 강화기 이전(2015~16년) 연평균 상품수지 적자: -5억 1,008만 달러
- UN 대북제재 강화기(2017~19년) 연평균 상품수지 적자: -19억 5,881만 달러
- 코로나19 국경봉쇄기(2020~21년) 연평균 상품수지 적자: -4억 6,810만 달러

그림 4.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나. 수입의 산업 및 품목별 동향

■ 위드코로나 전환 시도 이후 수입 품목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입 물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함.

- 하반기에 위드코로나 전환을 시도하면서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연간 총액의 58.8%가 하반기에 기록됨.
- 대중 수입은 8억 9,335만 달러로 2021년의 2억 6,016만 달러 대비 243.4%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25억 7,381만 달러 대비 65.3% 감소한 수준이어서 수입 물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 비중을 보면, 2022년은 2021년 대비 농업품, 섬유·의류 등의 수입량이 증가하였는데, 농업품은 민생 소비품(대두유, 밀가루, 설탕, 조미료, 담배) 위주로 수입하였으며, 섬유·의류는 내수용과 더불어 임가공 수출용 섬유 원부자재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됨.

- 수입은 농업(26.6%), 플라스틱·고무(20.8%), 화학(20.4%), 섬유·의류(18.9%), 목재(5.3%) 순으로 이루어짐.
- 일부 산업(화학, 플라스틱·고무) 품목의 수입 비중은 2021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입 총액이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산업용 중간재 공급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021년 수입은 화학(33.0%), 플라스틱·고무(26.1%), 농업(21.0%), 섬유·의류(8.5%), 목재(5.3%) 순임.
 - 모든 산업의 수입금액은 2021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화학은 [2021년] 33.0% → [2022년] 20.4%로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2021년] 1억 2,450만 달러 → [2022년] 2억 5,201만 달러로 증가
 - 플라스틱·고무도 [2021년] 26.1% → [2022년] 20.8%로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2021년] 1억 1,566만 달러 → [2022년] 2억 7,173만 달러로 증가

- 특히 2022년 하반기에는 섬유·의류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당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섬유·의류 비중은 [상반기] 25.4% → [하반기] 18.5%로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상반기] 7,754만 달러 → [하반기] 2억 5,201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 섬유·의류 산업의 비중과 금액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섬유·의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보여줌.

표 1. 2022년 수입의 산업별 비중

(단위: %)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년	
							상반기	하반기
농업	13.8	27.5	26.0	44.5	21.0	26.6	26.5	26.9
화학	5.1	11.6	10.3	14.0	33.0	20.4	25.4	18.5
전기	10.3	0.4	0.1	0.0	0.0	0.0	0.0	0.0
기타	5.3	7.9	9.9	6.4	2.4	4.3	3.4	4.5
섬유/의류	25.9	27.9	29.6	14.1	8.5	18.9	12.9	21.1
기계류	7.6	0.3	0.0	0.1	0.0	0.0	0.0	0.0
수산	3.2	3.3	2.2	1.1	0.0	0.0	0.0	0.0
광업	2.5	1.8	2.0	1.6	3.7	2.1	1.9	2.1
플라스틱/고무	8.8	12.6	13.2	12.3	26.1	20.8	22.4	20.0
금속	6.5	0.1	0.0	0.0	0.0	0.0	0.0	0.0
목재	4.6	6.5	6.6	5.8	5.3	6.9	7.4	7.0
운송수단	6.3	0.1	0.0	0.1	0.0	0.0	0.0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화물 열차 재개와 함께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주요 수입 품목의 비중도 감소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원부자재 조달, 주민 소비품 다양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상반기 3개월 반(2022. 1. 17~4. 29), 하반기 3개월(2022. 9. 26~12. 31) 간 화물 열차를 운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수입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임.
 - 하반기에 증가한 품목 수가 더 많은 만큼 하반기에 위드코로나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
- 수입 품목이 다양해질수록 주민들의 후생이 개선되고 필요한 산업 원부자재의 조달도 용이해졌을 것임.
- 그러나 2019년과 비교하면 수입되는 품목의 수는 66.1% 수준이어서 수입물자 부족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화물트럭 운행을 재개하여 2019년 대비 부족한 약 35% 수입 품목 수와 수입액을 회복하여야 함.

표 2. 상반기 수입 품목 수(2015~22)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974	974	855	777	692	603	90	382
하반기	1,034	1,034	856	680	715	377	250	477
년	1,034	1,034	908	830	762	624	257	504

주: HS4단위를 1개 품목으로 가정하여 계산. (상반기 + 하반기 ≠ 총계)인 것은 동일 품목이 상반기에 모두 수입되었기 때문임.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위드코로나의 영향으로 주요 수입 품목도 변화하였는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소비량도 늘어나는 한편, 임가공 무역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로 평가됨.

- 북한은 고난의 행군기에 '장마당(시장)'이 '붕괴된 국가 상업유통망'을 대체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데, 코로나19 시기에도 시장이 수입 증가를 이끌면서 수입 물자 부족 문제를 경감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2022년 상반기에는 당국이 비상방역체제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제한적으로 운용하였으나, 2022년 8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시장에 대한 통제가 다소 느슨해졌고 이것이 하반기 시장 활성화로 이어졌음.
- 섬유 원부자재 수입량 증가는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이루어진 소규모 임가공 밀무역 재개 시도의 일환으로 보임.
- 예외적으로 고무타이어 수입량 증가는 민간 수요 증가와 함께 군용(장갑차, 미사일 운반 차량)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한이 2022년 하반기부터 열병식을 개최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도발을 이어가고 있음.

표 3. 2022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20순위)

(단위: 만 달러, %)

순위	2022년 전체				상반기				하반기			
	품목명	HS4	금액	비중	품목명	HS4	금액	비중	품목명	HS4	금액	비중
1	대두유(콩기름)	1507	4877	5.5	대두유(콩기름)	1507	2143	7.1	쌀	1006	3271	5.5
2	고무타이어	4011	4427	5.0	플라스틱 필름	3920	1839	6.1	고무타이어	4011	3248	5.5
3	약품	3004	4085	4.6	약품	3004	1745	5.7	메라야스 편물	6006	2987	5.1
4	쌀	1006	3321	3.7	고무타이어	4011	1179	3.9	대두유(콩기름)	1507	2735	4.6
5	메라야스 편물	6006	3309	3.7	말가루	1101	1173	3.9	약품	3004	2340	4.0
6	플라스틱 필름	3920	3144	3.5	사탕수수당(설탕)	1701	1025	3.4	합성팔라멘트사 직물	5407	2300	3.9
7	합성팔라멘트사 직물	5407	3107	3.5	유기계면활성제 (바누나 세제 원료)	3402	975	3.2	사탕수수당(설탕)	1701	1784	3.0
8	사탕수수당(설탕)	1701	2809	3.1	에틸렌 중합체	3901	942	3.1	담배	2403	1723	2.9
9	담배	2403	2371	2.7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927	3.1	플라스틱 바닥 깔개	3918	1583	2.7
10	플라스틱 바닥 깔개	3918	2195	2.5	합성팔라멘트사 직물	5407	806	2.7	담배, 시가	2402	1335	2.3
11	말가루	1101	1893	2.1	합성스테이플섬유	5503	733	2.4	플라스틱 필름	3920	1305	2.2
1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1874	2.1	팜유	1511	713	2.3	가발 가염 눈썹 속눈썹	6704	964	1.6
13	에틸렌 중합체	3901	1696	1.9	담배	2403	648	2.1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947	1.6
14	합성스테이플섬유	5503	1635	1.8	플라스틱 바닥 깔개	3918	611	2.0	앞담배	2401	936	1.6
15	유기계면활성제 (바누나 세제 원료)	3402	1470	1.6	탄산염	2836	558	1.8	합성스테이플섬유	5503	902	1.5
16	담배, 시가	2402	1408	1.6	살충제, 제초제	3808	532	1.8	포장용 빈 포대	6305	867	1.5
17	앞담배	2401	1314	1.5	질소비료	3102	472	1.6	세탁믹 타일	6907	814	1.4
18	팜유	1511	1220	1.4	신문용지	4810	442	1.5	에틸렌 중합체	3901	753	1.3
19	탄산염	2836	1202	1.3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4802	424	1.4	말가루	1101	720	1.2
20	가발 가염 눈썹 속눈썹	6704	1111	1.2	바누	3401	398	1.3	사람 머리카락	6703	710	1.2
상위 20개 소계			48,467	54.3	상위 20개 소계		21,443	70.6	상위 20개 소계		32,224	54.6
2022년 총합			89,335	-	상반기 총합		30,362	-	하반기 총합		78,973	-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쌀 수입량 증가는 쌀 수급 불안정, 식량난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연중 수입 4순위, 하반기 1순위] 쌀(HS 1006)을 3,321만 달러(연중 수입의 3.7%, 7만 4,866톤) 수입하였는데, 이는 2017~18년* 연평균 3만 9,556톤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준임.
 - 전체 쌀 수입의 98.8%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하반기 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으로 판단됨.
 - UN 대북제재 강화기(2017~18)에는 연평균 3만 9,556톤의 쌀을 수입하였는데, 2022년의 수입량은 이보다 많아 통상적인 수입량으로 보기는 어려움.
 - 2019년 여름에는 태풍 링링이 북한의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도를 덮치면서 식량난이 발생하였고, 이 시기에 약 16만 1,609톤의 쌀을 수입하였음.
 - 수입 규모만 보면 2022년의 식량 수급 불안정은 2019년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한 쌀은 우리가 주로 먹지 않는 찰기가 없고 길이가 긴 장립종(인디카 쌀⁸⁾)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질보다는 양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식량작물 수입량을 보면,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수입량은 2022년에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하여서 북한이 정책적으로 '쌀' 수입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북한이 2023년 6월까지 쌀 50만 톤을 수입⁹⁾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쌀 수입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 주요 식량작물의 수입량

(단위: 톤)

구분	쌀(HS 1006)						옥수수(HS 100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188	180	742	1,325	-	-	-	-	413	1,184	-	-
2월	60	-	-	-	-	-	389	-	-	-	-	-
3월	956	457	2,022	-	-	180	882	-	1,058	-	-	-
4월	1,502	819	5,949	-	-	720	1,406	16	2,187	-	-	-
5월	3,547	539	9,399	-	-	-	1,320	227	1,624	50	-	-
6월	6,099	1,348	7,568	-	-	-	3,691	2,611	1,759	3	-	-
7월	10,476	2,047	36,812	-	-	10,000	16,476	400	6,265	-	-	-
8월	7,021	6,088	32,139	-	-	-	8,354	35	257	-	-	-
9월	1,989	6,085	33,492	-	-	-	1,063	-	-	-	-	-
10월	1,058	8,712	16,661	-	-	16,450	-	30	60	-	-	-
11월	672	10,697	8,234	-	-	30,172	100	2	1,656	-	-	-
12월	2,016	6,560	8,592	-	-	17,344	660	1,023	7,660	-	-	-
총계	35,581	43,532	161,609	1,325	-	74,866	34,339	4,344	22,939	1,237	-	-

8) 「北, 작년 10~12월 장립종 쌀 대거 수입...식량난 주민구호 차원」(2023. 1. 24), 『연합뉴스』, <https://www.premiumnews.co.kr/main>(검색일: 2023. 3. 9) 연합뉴스 프리미엄DB를 통해 저자 작성.

9) 「식량난 北, 중국 통해 쌀 대량수입...내년 6월까지 50만t 계획」(2023. 1. 24), 『연합뉴스』, <https://www.premiumnews.co.kr/main>(검색일: 2023. 3. 9) 연합뉴스 프리미엄DB를 통해 저자 작성.

구분	밀가루(HS 1101)						전분(HS 1108)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193	31,452	12,460	29,741	-	6,044	457	1,050	263	1,184	-	-
2월	672	12,022	22,255	8,063	-	5,038	154	-	174	82	-	10
3월	1,788	25,652	14,750	2,288	-	2,020	773	290	472	-	-	-
4월	750	14,569	23,618	4,744	-	11,070	304	547	533	-	-	-
5월	400	14,724	11,471	29,131	-	2,197	405	971	477	16	-	-
6월	6,486	11,906	24,409	30,721	-	8,015	641	35	459	-	-	-
7월	2,382	15,666	13,207	4,945	-	3,605	1237	83	400	2	40	-
8월	6,001	8,235	23,764	-	-	1,565	1270	380	695	-	-	-
9월	13,413	8,356	13,880	-	-	-	407	313	684	5	-	-
10월	11,600	11,731	17,966	-	-	2,621	609	201	695	-	-	-
11월	17,505	11,363	12,945	-	-	6,597	437	243	548	-	-	-
12월	20,464	22,130	32,852	-	980	6,735	470	976	820	-	-	-
총계	81,654	187,802	223,579	109,633	980	55,507	7,164	5,089	6,219	1,289	40	10

주: 감자, 콩, 보리 등의 경우 수입이 없어 표로 만들지 않았음.
자료: 중국 해관 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식자재 수입은 2017~19년 연평균 수입량의 34.0%로 식료품 생산과 민생소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식자재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료품 생산보다는 시장 유통을 통한 민생용 수입이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표 5. 주요 식자재 수입량

(단위: 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두유	97,831	125,418	113,254	64,861	5,210	30,806
사탕수수당(설탕)	67,793	73,403	99,773	82,394	11,434	57,267
담배류	6,690	12,907	14,834	6,263	3,839	6,958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조미료)	10,747	7,881	28,912	14,345	3,112	14,799
밀가루	81,654	187,802	223,579	109,633	980	55,507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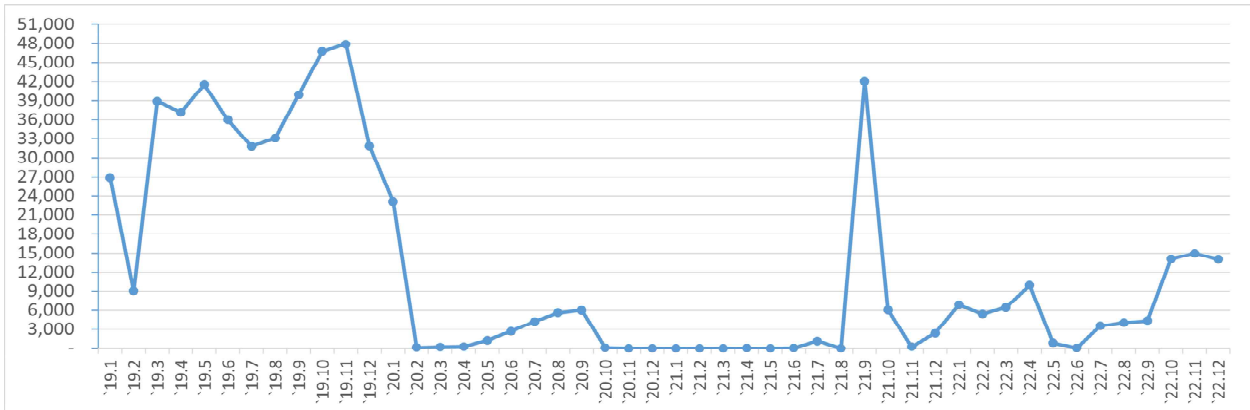
■ 섬유·의류 원부자재를 보면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북한이 소규모 임가공을 재개한 듯한 징후가 관찰되는데 상위 30개 품목 중 섬유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상반기 6.1%→하반기 12.1%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메리야스 편물과 합성필라멘트사직물, 합성필라멘트사섬유 등 섬유·의류 원부자재의 수입액만 연간 전체 수입의 9.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022년 섬유 원부자재 수입량이 8만 4,424톤으로 2020~21년 연평균 수입량 4만 7,819톤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움.

- 만약 현재의 증가추세가 2023년 1/4분기에도 지속된다면 북한이 소규모로 섬유·의류 비공식무역(밀수출) 임가공을 재개했다고 의심해볼 수 있음.

그림 5. 북한의 섬유·의류 원부자재 수입량

(단위: 톤)



주: 섬유·의류 원부자재는 HS 54, 55, 61, 62의 수입물량을 합산한 것임.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타이어 수입량이 최근 6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용 용도를 보면 버스·화물차용 대형 타이어의 수입 비중이 72.5%로 가장 높으며, 건설용·산업용 타이어도 7.3%로 세 번째인데, 이 두 품목은 군사용(장갑차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임.

표 6. 고무타이어 수입량

(단위: 톤)

구분	버스·화물차용 대형 타이어 (HS401120)	승용차용 타이어 (HS 401110)	건설용·산업용 타이어 (HS 401180)	자전거용 타이어 (HS 401150)	승용차용 튜브 (HS 401310)	총계
2017	11,052	1,403	562	2,411	270	16,229
2018	9,158	980	174	1,890	330	12,986
2019	15,439	1,329	562	1,684	563	20,090
2020	9,936	274	264	103	154	10,842
2021	6,593	516	179	118	338	7,698
2022	14,676	1,777	1,474	1,367	668	20,246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다. 수출의 산업 및 품목별 동향

- 신규 수출 품목을 육성하면서 수출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2022년 대중 수출은 1억 3,441만 달러로 2021년의 5,787만 달러 대비 132.2% 증가하였으나, 2019년의 2억 1,520만 달러 대비 27.5% 감소한 수치임.

■ 산업별 비중은 광업(33.3%), 금속(20.8%), 섬유·의류(17.9%), 전기(15.3%)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7. 2022년 수출의 산업별 비중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년	
							상반기	하반기
농업	6.3	6.7	1.3	0.8	4.5	0.1	0.0	0.1
화학	0.4	2.8	3.9	5.1	4.9	4.9	5.3	4.7
전기	2.4	5.8	5.3	24.7	29.3	15.3	27.6	10.7
기타	4.9	33.9	41.2	26.3	6.7	7.4	9.3	6.7
섬유/의류	34.4	15.0	20.4	6.7	7.2	17.9	19.5	17.3
기계류	0.0	0.0	0.0	0.0	0.0	0.0	0.0	0.0
수산	9.5	0.0	0.0	0.0	0.0	0.0	0.0	0.0
광업	37.0	16.8	10.0	11.7	1.0	33.3	19.2	38.6
플라스틱/고무	0.1	0.4	0.5	0.2	0.0	0.0	0.0	0.0
금속	4.1	16.2	16.1	24.0	46.3	20.8	17.6	21.9
목재	0.8	2.4	1.2	0.5	0.0	0.0	0.1	0.0
운송수단	0.1	0.0	0.0	0.0	0.0	0.4	1.4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품목 수는 연중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출 자체가 해운(선박)으로만 이루어져 위드코로나(육로 무역 재개)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임.

- 수출 품목 수가 [상반기] 33개 → [하반기] 47개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수출품이 증가한 것으로 품목 수 증가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음.

표 8. 연도별 상반기 수출 품목 수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974	974	217	125	87	75	19	33
하반기	1034	1034	226	100	90	28	22	36
총계	1,034	1,034	271	161	112	84	35	47

주: HS4단위를 1개 품목으로 가정하여 계산. (상반기 + 하반기 ≠ 총계)인 것은 동일 품목이 상반기에 모두 수입되었기 때문임.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수출 주요 품목은 광물, 금속, 섬유·의류, 전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 품목으로 2021년부터 비단(Silk, 견)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나 계절성(1년에 두 차례 수확)이 강해 증가 폭이 크지 않음.

- 광물(텅스텐, 합금철, 몰리브덴광)과 금속(합금철)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저축 여부와 관련하여 다량의 소지가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고, 생산에 전력 소비가 많아 수출 확대 여력이 크지 않음.

- 광물과 금속은 국경봉쇄보다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한이 수출경쟁력을 갖는 품목은 무연탄과 철광석 등임.
- 섬유·의류는 가발, 가수염, 가늌썸, 속눈썹과 비단(견) 제품이 주를 이루는데, 북한에서 전통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인 정장 상하의, 외투 등은 수출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음.
- 섬유·의류 수출이 금지되었던 2017~19년에도 전통적인 섬유·의류는 비공식 무역(밀무역)으로 수출되어 수출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음.
- 전기 생산은 북중 공동으로 운영하는 압록강 수풍댐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데, 압록강 유역의 강수량에 대한 의존성이 커 수출 확대에 제약이 큼.

표 9. 상하반기 수출 품목

(단위: 만 달러)

순위	년 전체				상반기				하반기			
	품목명	HS4	금액	비중	품목명	HS4	금액	비중	품목명	HS4	금액	비중
1	텅스텐과 텅스텐 암석	2611	3,092	31.4	전기에너지	2716	995	27.6	텅스텐과 텅스텐 암석	2611	2,656	27.0
2	합금철(페로실리콘)	7202	2,695	27.4	합금철(페로실리콘)	7202	555	15.4	합금철(페로실리콘)	7202	2,140	21.8
3	전기에너지	2716	2,039	20.7	생사(비단실)	5002	493	13.7	가발, 가수염, 눈썹, 속눈썹	6704	1,116	11.3
4	몰리브덴광과 정광	2613	1,366	13.9	텅스텐과 텅스텐 암석	2611	436	12.1	몰리브덴광과 정광	2613	1,111	11.3
5	가발, 가수염, 눈썹, 속눈썹	6704	1,157	11.8	몰리브덴광과 정광	2613	254	7.1	전기에너지	2716	1,044	10.6
6	생사(비단실)	5002	889	9.0	휴대용시계 무브먼트	9108	179	5.0	유리	7005	543	5.5
7	유리	7005	889	9.0	견 웨이스트	5003	167	4.6	생사(비단 실)	5002	396	4.0
8	탄화물	2849	436	4.4	탄화물	2849	140	3.9	탄화물	2849	296	3.0
9	견 웨이스트	5003	329	3.3	유리	7005	129	3.6	견 웨이스트 (비단 잔여물)	5003	162	1.6
10	휴대용시계 무브먼트	9108	179	1.8	잉곳(철괴)	7206	79	2.2	전사용 기구와 모형	9023	60	0.6
11	칼럼비료	3104	90	0.9	차량부품	8607	50	1.4	칼럼비료	3104	57	0.6
12	잉곳(철괴)	7206	79	0.8	가발, 가수염, 눈썹, 속눈썹	6704	40	1.1	인조흑연	3801	43	0.4
13	전사용 기구와 모형	9023	60	0.6	칼럼비료	3104	33	0.9	오렌지 오일	3301	31	0.3
14	차량부품	8607	50	0.5	관악기	9205	16	0.5	의약품	3004	28	0.3
15	인조흑연	3801	43	0.4	복합비료	3105	7	0.2	관악기	9205	26	0.3
16	관악기	9205	42	0.4	체육물품	9506	7	0.2	체육물품	9506	14	0.1
17	오렌지 오일	3301	36	0.4	활성탄	3802	5	0.1	조화	6702	10	0.1
18	의약품	3004	28	0.3	정유(오렌지유)	3301	5	0.1	증류주(80도 미만)	2208	6	0.1
19	체육물품	9506	20	0.2	장난감 차	9503	5	0.1	낙산대	9507	5	0.1
20	조화	6702	14	0.1	조화	6702	3	0.1				
상위 20개 소계			13,533	99.9	상위 20개 소계		3,599	99.8	상위 20개 소계		9,749	99.1
년 총합			13,533	-	상반기 총합		3,605	-	하반기 총합		9,836	-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임가공 수출 품목인 가발, 가수염, 가눈썹, 속눈썹(HS 6704)은 연간 1,157만 달러(총수출의 11.8%) 수출되고 있고,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북한이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임가공 수출 재개를 의심해볼 수 있으나, 아직 금액이나 물량은 평년 대비 매우 적은 수준임.
- 이 품목은 섬유·의류와 생산 방식이 유사하므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섬유·의류의 비공식 수출(밀수출)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생산량이 연중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

표 10. 가발, 가수염, 가눈썹, 속눈썹 수출입 현황

(단위: 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중 수입	85	95	158	12	0	94
대중 수출	688	1,051	1,829	189	2	79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비단 제품[생사(비단실) HS 5002, 견 웨이스트 HS 5003]의 2022년 연간 수출이 각각 889만 달러(총수출의 6.6%)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이고 계절성이 강해서 확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비단의 고치 수확 시기는 1년에 2회(6월, 9월)로 계절성이 강해 생산에 제약이 있음.

표 11. 비단 제품(비단실, 견 웨이스트)의 현황

(단위: 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중 수입	30	0	2	0	237	778
대중 수출	9	0	0	0	266	887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라. 지역별 동향

-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랴오닝성이 대중 수출입 모두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경봉쇄로 해상 운송의 비중이 커지면서 수입면에서는 산둥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국경봉쇄로 인적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전통적으로 북한과 높은 교류협력 관계를 가진 랴오닝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수출에서는 산둥성의 비중이 높지 않은데, 북한의 무역은 오고가는 물류가 균형을 이루지 않아 고비용 구조를 하고 있음.
 - 수입은 전통적인 교역성인 랴오닝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료와 대두유, 밀가루 등 필요 물자 수입을 위한 산둥성과의 교역이 그 뒤를 이음.

- 반면 수출은 산둥성 랴오닝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UN의 대북제재로 섬유·의류, 철광석 수출이 막히면서 산둥성으로의 수출은 대폭 줄어들었음.

표 12. 북한의 지역별 대중 수입(상), 수출(하) 현황

(단위: 만 달러)

2019		2020		2021		2022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광둥	86,148	랴오닝	26,151	랴오닝	16,027	랴오닝	58,417
랴오닝	83,140	광둥	12,492	산둥	4,503	산둥	14,614
지린	26,836	푸젠	4,657	광둥	2,089	광둥	4,993
푸젠	16,003	지린	2,091	허베이	908	허베이	4,288
허베이	9,383	산둥	1,305	장수	760	지린	1,194

2019		2020		2021		2022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역	금액
지린	13,285	랴오닝	2,334	랴오닝	4,591	랴오닝	10,478
랴오닝	4,426	지린	1,432	산둥	623	지린	1,445
광둥	1,470	광둥	654	지린	381	헤난	567
안후이	1,361	산둥	191	광둥	126	산둥	526
산둥	718	절강	150	절강	53	절강	145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4. 2022년 평가와 2023년 전망

가. 2022년 평가

- [경제난과 위드코로나 전환] 경제난에 대응하여 북한은 안정적인 식량생산 관리와 쌀 수입 확대, 위드코로나 전환을 시도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지적인 식량난으로 아사자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북한 당국은 부족한 수입물자를 수입하여 산업생산을 정상화하고 노후한 생산설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하나 구조적으로 코로나19 국경봉쇄를 단변에 해제할 수는 없음.
 - UN 대북제재는 수출을, 코로나19 국경봉쇄는 수입을 제약하고 있는데, 수입 물자 부족과 산업생산 둔화로 인한 경제난은 체제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증가는 식량생산 기반을 깨뜨리면서 체제안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농업생산 기반 확충과 식량생산 기반 마련 요구, 사회적·경제적 통제 강화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두 차례 개최된 전원회의(2023년 1월, 3월)에서도 농촌 건설과 식량 증산(정도당 12톤)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또한 쌀 수입량을 늘리면서 당장의 식량부족에 대응하는 한편, 하계에 예상되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준비하고 있음.
 - 다만 2022년 식량 생산량은 2021년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지적으로 아사자가 발생하였음.
- 대외적으로는 2022년 하반기부터 국경봉쇄 정책을 완화하고 위드코로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북한의 위드코로나, 즉 대외무역 정상화는 운송수단을 해상 운송에서 화물 열차와 트럭으로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운송수단 다양화와 관계없이 대중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중 수입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 만약 위드코로나 전환 성공으로 수입이 정상화된다면 수입 물자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제난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됨.

나. 2023년 전망

1)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수출은 소폭 증가할 듯

■ [위드코로나 전환] 주요 무역 통로인 단둥-신의주에도 화물 트럭 운행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무역 여건이 코로나19 국경봉쇄 이전으로 돌아감을 의미함.

- 현재 화물 트럭은 훈춘-나선시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나선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도시로 북한 본토와 격리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지역 봉쇄가 용이함.
- 훈춘-나선시 구간 시범 운행이 성공을 거둔다면 2023년 하반기에는 단둥-신의주 구간 화물 트럭 운행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됨.
-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에는 북한이 군사·안보 도발을 감행할수록 경제를 압박하기 위하여 UN 대북제재 준수와 추가 의결, 중국의 역할론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갈등이 한반도 문제로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시작할 전망이다.

■ [수입 규모 확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적응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주요 무역 통로인 단둥-신의주 구간에 화물 트럭 운행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북한이 해운(선박)과 화물 열차를 운용하여 2023년에 달성할 수 있는 수입액은 약 15억 8,4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2년의 10억 2,776만 달러 대비 54.1% 증가한 것임.
- 2022년에 해운(선박)과 화물 열차를 운용하여 달성한 최고 수입액은 10월에 기록한 1억 3,200만 달러인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5억 8,400만 달러임.

- 만약 단둥-신의주 구간에 화물 트럭을 운용한다면, 북한의 수입액은 더욱 증가할 것임.

■ [수출 증가] 북한 당국이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산업생산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수출품인 광물과 섬유·의류의 생산량 확대를 도려할 것인 만큼 수출이 정책적인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수출은 위드코로나 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운송 수단의 제약, UN 대북제재 시행 이후 대체 수출품 육성 실패 등에 기인함.
 - 운송 수단이 화물 열차와 화물 트럭으로 다양해졌지만 모두 '중국→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할 뿐, '북한→중국'으로 화물은 운송하지 않아 수출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임.
 - 또한 UN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실크 제품, 대체 광물(합금철), 가발·가수염·가눈썹 등 대체 수출품을 육성 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음.
- 만약 섬유·의류의 소규모 임가공 무역이 재개된다면 2019년과 동일하게 비공식 무역(밀수출)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큼.

■ [시장 활성화와 민생수요 증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시장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것이 동력이 되어 민간 소비가 수입 증가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음.

- 2022년 수입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수요에 해당하는 품목(설탕, 담배, 조미료)의 수입이 2017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데 반해 산업용 원부자재의 수입은 그렇지 못하였음.
- 그만큼 시장을 매개로 한 주민들의 소비가 북한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큼.

■ [임가공 무역 확대 징후] 2023년 상반기에 섬유·의류 원부자재 수입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비공개 무역 형태로 소규모 임가공 밀무역을 재개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섬유·의류 원부자재는 상반기에 수입이 감소하고 하반기에 증가하는 특징을 갖는데, 2023년 상반기에도 2022년 하반기 수준의 원부자재 수입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민수용 외에 다른 용도로 섬유·의류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음을 의심해볼 수 있음.
 - 북한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소규모 임가공 밀무역을 재개했다는 것 외에는 섬유·의류 원부자재 수입을 지속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음.

2)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는 확대되겠으나, 이는 북한이 1~2년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 2023년 상품수지 적자는 최대 14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으나, 북한이 충분한 외화(2021년 말 기준 약 7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이 정도의 상품수지 적자는 1~2년간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4억 달러의 적자는 북한이 해운(선박)과 화물 열차만을 활용하여 무역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
- 만약 북한이 화물 트럭 운행까지 재개한다면 상품수지 적자는 14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음.

3) 쌀 수입은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듯

- 북한 내 쌀이 충분하게 유통되지 않는 징후가 보여, 2023년 상반기에도 매달 1만 톤 이상의 쌀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3~5월은 춘궁기로 식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므로 해외로부터의 식량 조달이 중요함.
- 2022년의 수입량이 최근 6년간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식량부족에 대비하여 매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도 북한의 쌀 수입은 지속될 전망이다.

4) 기후변화로 2023년 하절기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 내 식량 공급의 불확실성 확대

-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에 재해성 기상현상이 빈발하고 있는데, 열돔 현상(heat dome)에 따른 폭염과 국지성 폭우,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지역 침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2020년부터 국경봉쇄를 이어가면서 수입 물자 부족 문제로 경제난을 겪고 있음.
- 산업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대규모 홍수나 가뭄, 폭염, 기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국제기구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물자가 세관 방역장에서 10일 이상 격리를 거쳐야 하므로 구호 물품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기까지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함.
- 북한의 식량 생산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연재해인 홍수로 도로나 다리가 유실될 경우 식량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지적으로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산업생산 감소로 북한경제는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최근에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농업생산을 강조한 것도 2023년 하절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공급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 여름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대규모 아사자 발생(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로 인한 수출입의 급격한 감소와 연이은 자연재해(1995년 대홍수, 1996년 대홍수, 1997년 대가뭄 등)로 인해 발생한 것임.
 - 현재의 북한도 수출입의 급격한 감소로 물자난을 겪고 있으나, 수년에 걸친 자연재해의 피해가 누적되어 있지는 않음.
- 특히 북한 당국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당국 차원에서 식량 생산과 농촌개발에 정책적인 방점을 두면서 대응하고 있음.
 -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에는 정책 당국의 행정력이 사실상 마비되었던 데 비해 2022년에는 '국가의 통일

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중앙집권적 행정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

- 그에 따라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와 같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2019년 태풍 링링으로 4만 6,200ha의 농지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쌀수입 확대와 수해지역 긴급 복구로 자연재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음.
 - 2021년 8월 함경남도 폭우로 주택 1,170호가 침수되었으나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지 않았음.
 - 2022년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서 북한 체제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8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였음.
-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로 국지적으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이는 북한의 물류와 통신 인프라, 행정력, 그리고 물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

5) 대외협력 재개

■ [위드코로나 전환과 북중 협력 강화] 중국이 양회(2023년 3월)를 끝내고 위드코로나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북한도 중국과 위드코로나 전환 속도를 맞추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재개할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 국경의 인력 이동을 허용하고, 북중 접경지역의 초국경 인프라 건설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접경지역 외국인 관광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 [초국경 인프라 협력] 구체적으로 2021~22년 기간 이루어진 신압록강대교와 북한의 국도 1호선 연결도로 포장 공사에 이어, 연결도로에 북한 세관을 설치한 뒤 신압록강대교를 활용하여 북중 무역을 추진할 개연성이 큼.
- [접경지역 당일 관광] 또한 평양에서 거리가 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봉쇄가 수월한 신의주와 나선시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북한 접경지역 당일 관광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음.

■ [러시아 무역과 경제협력 확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소규모로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경제적인 이유보다 국제정치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임.

- 북한이 2022년 11월 말 러시아와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음.
-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북한 노동자 500명을 파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¹⁰⁾
- 러시아와의 협력은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어기고 이루어질 개연성이 커, 대북제재의 목적인 '경제적 압박을 통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약화시킬 개연성이 크며, 이는 UN 안보리 체제의 실효성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다자공조를 통한 국제협력을 저해할 것임.
- 또한 북러 무역과 경제협력 확대는 한반도에서 '한미일 vs 북중러' 경쟁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KIEP

10) 「북, 우크라 동부에 노동자 500명 파견」(2023. 3. 9), RFA,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human_rights-03082023152601.html(검색일: 2023. 3. 10).